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2014.02.28), pp. 11~49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출산*

고 일 홍**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과거 여성의 출산이라는 주제를 고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과거 여성의 출산이 어떻게 유의미한 연구 주제로 성립되었는지를 젠더 고고학의 정착이라는 학사적인 맥락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 양상의 검토를 통해 과거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인류학 분야에서 출산 관련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여성의 출산에 관한 실증적인 고고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 가지 범주의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출산 장면의 시각적 표현물을 통해 사회 내에서 여성의 출산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둘째, 고고학자가 발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출산 관련 물질문화를 검토함으로써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출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셋째, 출산 중 사망한 여성과 태아의 인골 자료를 살펴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출산, 젠더 고고학, 시각적 표현물, 물질문화, 인골 자료
Childbirth, gender archaeology, images, material culture, skeletal evidence

에 있어서, 임신을 경험했던 과거 여성들의 수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출산의 보편성이나 빈도에 관한 기존의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은 사회가 성공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잉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출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위기 순간(life crisis event)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사회적 규범들은 아주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듯 출산은 생물학적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사건이기도 한 만큼 인류학자들은 일찍부터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오늘날에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인류학'(the anthropology of reproduction)이라는 분과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옛 사회 집단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에서는 출산에 관한 논의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고고학의 학문적 목표 중 하나가 과거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 집단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경험했을 출산이 고고학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고고학에서는 출산에 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가? 학문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의 영향으로 관련 자료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출산에 관한 고고학 자료들이 실제로 빈약하기 때문인가? 그리고 만약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과거 여성의 출산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

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1970년대 이래로 젠더(페미니즘) 고고학은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주목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정작 여성의 출산은 젠더 고고학 내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 주제에 관한 고고학 연구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에 관한 논의가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적 상황에 대해 젠더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성했으며, 또한 차후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과거 여성의 출산이 고고학에서 꼭 다루어야 할 주제라는 것에 대해 젠더 고고학자들이 공감할지라도, 젠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고고학자들에게 그 연구의 필요성이나 효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고고학에서의 출산 논의는 진전되기 힘들 것이다. 이는 고고학 자료의 발견, 보고 및 분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이라는 주제가 과거의 여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전반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분명히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류학의 연구 성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류학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출산의 제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셋째, 고고학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질자료이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과거 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실제 고고학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출산에 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출산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여성의 출산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고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자료가 발견되었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이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과거의 출산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로는 출산 장면의 시각적 표현물, 출산 과정에서 활용된 물질문화, 그리고 '실패한 출산'을 반영하는 산모 및 태아의 인골 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은 시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특정 사회의 출산 양상에 대한 종합적 정보나 그러한 출산 양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에 대한 해상도 높고 이해를 얻기란 힘들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그간 간과해 왔던 이 고고학 자료들은 분명히 해당 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출산 장면의 시각적 표현물이 제작 및 소비된 맥락은 해당 사회 내에서 여성의 출산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출산 장면을 담고 있는 매체(예를 들어, 토기)의 제작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 중에 사망한 여성 인골의 발견 빈도가 예상 외로 아주 낮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변수들도 분명히 개입되어 있겠지만) 과거 사회 내에서 출산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빈번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된 과거 여성의 출산에 관한 시사점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던 당시 사회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근대의학이나 가부장제의 틀 밖에서 진행된 출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오늘날의 현대 여성에게 출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고학에서의 출산 연구

2.1. 고고학에서의 과거 여성에 관한 연구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 과거 여성에 대한 연구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형성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그러한 연구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페미니즘 연구들(feminist scholarship)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연구의 첫 번째 흐름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학문 전반에 침투한 남성 중심주의적 시각에 대한 고발이었다. 여성 중심의 역사 서술이나 인류학적 논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페미니즘 연구의 두 번째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많은 연구자들은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특히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시대와 문화에 걸쳐 확인되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또한 그러한 억압 구조가 보편적인 것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일어난 페미니즘 연구의 세 번째 흐름 속에서는 '여성'이라는 일반화된 범주를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한 사회 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여성의 '다양한 모습들'이 간과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푸코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성을 더 이상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권력 관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것(즉, '젠더')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여성을 생물학적인 성으로 규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여성과 남성은 물론, 여성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1)]

이러한 페미니즘 연구의 흐름들이 고고학에 침투하기까지는 많은 시

간이 걸렸다. 젠더 고고학은 콘키와 스펙터의 1984년 논문 「고고학과 젠더의 연구」[2]의 출판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그런데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인을 배제한 채, '체계'(system)의 차원에서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던 만큼,[4] 고고학적 논의에서 여성은 한동안 등장하지 못했다. 기실 페미니즘 연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흐름들이 고고학적 연구에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그나마 젠더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도 그 세 번째 흐름이 자리를 잡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5]

이렇듯 페미니즘/젠더 고고학 주된 테마 중 하나는 과거의 여성을 그 생물학적 성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역할은 당연히 무시되었고, 임신, 출산 및 육아는 고고학 담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화이트하우스가 지적했듯이, 현대 여성들이 '어머니'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이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투쟁 속에서 (특히 유럽의) 페미니즘 고고학들에게 진정한 금기어였던 것은 바로 'M'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the 'M-word'), 즉 모성(motherhood)이었다.[6] 물론 남성 중심적인 학계 내에서

1) S. Hamilton, R. Whitehouse and K. I. Wright (2007), "Introduction", *Archaeology and Women: Ancient and Modern Issues* (eds. S. Hamilton, R. D. Whitehouse and K. I. Wright),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pp. 13-15.

2) M. W. Conkey and J. Spector (1984), "Archaeology and the Study of Gender",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7, Academic Press.

3) S. M. Nelson (2009), "Studies of Ancient Women: Global Trends", *Women of Ancient East Asia* (ed. Baekje Research Institute),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Baekje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s, p. 18.

4) A. Wylie (1991), "Gender theory and the archaeological record: Why is there no archaeology of gender?", *Engendering Archaeology: Women and Prehistory* (eds. J. M. Gero and M. W. Conkey), Oxford: Blackwell.

5) S. Hamilton, R. Whitehouse and K. I. Wright (2006), pp. 15-16.

6) R. D. Whitehouse (2007), "Gender Archaeology and Archaeology of Women: Do We

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학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를 생각해보면 왜 굳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않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을 생물학적 재생산의 '도구'로만 환원시켜 이해했던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반대로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일례로 유럽 젠더 고고학의 거두로 볼 수 있는 길크리스트와 소렌슨이 각각 저술한 젠더 고고학의 대표 교재인 『젠더와 고고학: 과거에 대한 이의 제기』[7]와 『젠더 고고학』[8]의 색인을 보면 '어머니'(mother), '모성'(motherhood), '생물학적 재생산'(biological reproduction)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9] 그나마 미국 젠더 고고학을 대표하는 넬슨이 쓴 『고고학에서의 젠더』[10]를 보면 저자가 모성이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나마 '어머니', '모성', '재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1]

그런데 화이트하우스가 주장했듯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어머니 이외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 이것은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오히려 여성에게 부여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어떻게 사회와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이다.[12] 이러한 페미니즘 전반

Need Both?", *Archaeology and Women: Ancient and Modern Issues* (eds. S. Hamilton, R. D. Whitehouse and K. I. Wright),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p. 34.

7) R. Gilchrist (1999), *Gender and archaeology: contesting the past*, London: Routledge.

8) M. L. S. Sørensen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9) R. D. Whitehouse (2007), p. 35.

10) S. M. Nelson (1997), *Gender in Archaeology, Analyzing Power and Prestige*, Walnut Creek: Altamira Press.

11) R. D. Whitehouse (2007), p. 35.

12) R. D. Whitehouse (2007), p. 35.

의 변화에 힘입어 고고학에서도 과거 여성의 출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2.2. 과거 여성의 출산에 관한 연구사

고고학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젠더 고고학의 관점에서) 다룬 가장 이른 시도는 볼렌의 1992년 논문 「선사시대 모성의 형성」[13]이 아닌가 싶다.[14] 여기에서 '모성'은 여성의 성의식, 정체성,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 육아, 사회 질서, 가정 내의 구조, 권력 등 다양한 생물학적 및 사회적 과정들이 다 함께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선사시대 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출산의 사례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저자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재생산 담당자로서의 여성'(woman as reproducer) 모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출산을 유의미한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볼렌의 논문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볼렌은 '모성'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여성 구성원들이 영원히 모성의 '육체적인 굴레'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즉 모든 여성이 지속적으로 (혹은 한번이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며, 불임인 여성들도 있고 생물학적 재생산에 선택적으로 참여

13) K. M. Bolen (1992), "Prehistoric Construction of Mothering", *Exploring Gender Through Archaeology* (ed. by C. Claassen), Madison, Wisconsin: Prehistory Press.

14) 이 무렵의 연구자들이 출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볼렌의 논문이 발표된 1992년에는 「생식력과 출산의 고고학: 금석병용기시대 키프로스의 제의적 매납 유구」와 같은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D. L. Bolger (1992), "The Archaeology of Fertility and Birth: A Ritual Deposit from Chalcolithic Cypru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48(2),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다만 이 경우에는 과거 여성의 출산이 아닌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출산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제의적 유물들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하지 않은 여성들도 있다는[15]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볼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의 인골에 대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고고학에서 출산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2000년에 출간된 보상의 「선사시대 출산에 관한 소개」[16]가 그 시작을 알렸다. 출산을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간과되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저자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선사시대의 출산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 논문을 썼다. 이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보상의 경우에는 출산과 관련된 '물질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물질문화에만 의존할 경우, 그 자료의 빈약함으로 인해 과거 출산에 대한 — 특히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 연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출산 관련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출산 관련 이미지와 인골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출산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자 그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4년에 출간된 도넬의 「선사시대의 출산」[17]에서는 인류학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후기 구석기시대 인구 집단이 성공적인 생물학적 재생산을 위해 이러한 필요조건을 어떻게 갖추었는지를 고고학 자료 연구를 통해 타진했다. 이 연구는 출산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적 모색을

15) K. M. Bolen (1992), p. 52.

16) E. Beausang (2000), "Childbirth in Prehistory: An Introduction",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3(1), SAGE Publications.

17) E. O' Donnell (2004), "Birthing in prehistor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3(2), Elsevier.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적 맥락이 후기 구석기시대인 만큼, 이 논문은 그 이후의 자료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후에는 출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그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을 하는 '담론' 중심의 연구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출산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흥미롭게도,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출산에 관한 논의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출산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2001년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출산 벽돌'(birth brick)과 2011년에 이탈리아에서 출토된 에트루리아 토기편에 찍힌 출산 이미지 등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매장지에 나온 인골 자료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연구자들은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이나 신생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새로운 발견과 새롭게 축적된 연구성과로 인해 과거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많이 진전되었다. 본고의 제3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3. 출산을 통한 과거 사회의 이해 — 인류학의 시사점

과거 여성의 출산에 대한 연구가 과거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류학적 연구에서 출산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트로브리앤드 제도 주민들의 출산 관념과 관습을 조사한 말리노프스키의 연구를 들 수 있다.[18] 그 이후 인류학자들은 출산 관념 및 관습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19]

18) B. Malinowski (1932), *The sexual life of savages in northwestern Melanesia*,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 C. Sargent (2004), "Birth", *Encyclopedia of Medical Anthropology: Health and Illness in the*

64개 사회들에 대한 정보를 수합한 포드[20]의 연구는 특히 고고학자들이 선사시대의 출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21] 포드 등에 의해 진행된 이러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인류학자들은 산업 사회 이전의 출산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을 파악했는데,[22] 사실 이러한 행위들은 출산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한 각 사회의 독특한 해결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23] 그런데 각각의 사회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는지는 사실 그 사회의 문화적 및 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를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로는 인류학에서의 출산 관련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즉 특정 집단 내에서 출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경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고로 이러한 변화에는 출산의 현장을 집적 관찰할 수 있는 여성 연구자들의 수적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24]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출산 체계'(birthing system)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출산 체계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특히 전통 사회 내에서 출산 체계가 어떻게 지식과 프락시스의 장을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25]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World's Cultures (Volume I)(eds. C. R. Meber and M. Ember), New York: Springer, p. 224.

20) C. S. Ford (1964),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eproduction* (Yale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32), New Haven: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Press.

21) 포드 등에 의해 진행된 출산 관련 비교문화적 연구 결과물들은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만큼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은 본고의 논지에는 맞지 않고 또한 지면의 한계가 있어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22) C. Sargent (2004), p. 224.

23) C. S. Ford (1964), p. 90.

24) C. Sargent (2004), p. 225.

출산 체계에 근대의 (남성 지배권이 강한) 의료 체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결국 인류학 분야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출산 관련 연구의 경향과 성과들은 출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가 현재는 물론 과거 사회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출산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과 그것들에 대한 해석

3.1. 출산 장면의 시각적 표현물[26]

출산 장면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었고, 또한 그러한 표현물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었는지는 과거 여성의 출산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조직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출산의 장면은 의외로 많지 않다. 참고로 여기에서 '출산 장면'이라 하면 아기가 산모의 몸에서 나오는 장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이러한 출산 장면들을 매체별로(①고정된 벽면, ②토기 장식, ③소상(小像))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그 생산 및 소비의 맥락을 중심으로 출산 장면들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

25) 예를 들어, R. Davis-Floyd and C. Sargent (1997), *Childbirth and authoritative knowledge: Cross-cultural perspec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6) 여기에서는 고고학 자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매체에 그려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출산 장면들을 검토한다. 따라서 인도의 세밀화나 앙코르 와트 사원의 외벽을 장식하는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출산 장면들은 다루지 않겠다.

3.1.1. 고정된 벽면에 표현된 출산 장면

터키 동남부의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 텔 유적은 정착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세워진 산 정상부의 성소로, 이곳의 원형 성소방 중 한곳에 설치된 기원전 8000년경의 나지막한 벤치에는 출산 중인 여성의 모습이 새겨졌다.[27] 참고로 이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출산 장면이다. 이 여성은 음부를 완전히 노출한 채 분만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아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 이것을 성기삽입 장면으로 해석한 연구자도 있으나,[28] 분만 장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9] 참고로 이것은 괴베클레 테페 유적에서 확인된 유일한 여성의 이미지라고 한다.

한편, 미국 유타의 모압(Moab)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방형계 바위에도 출산 장면이 암각화로 표현되었다. 프레몬트(450~1250 CE) 혹은 아나사지(1~1275 CE) 문화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암각화는 바위면을 쪼아서 제작했으며 바위의 동벽 왼쪽에 위치해 있다. 그 주변과 바위의 나머지 세 벽면에는 프레몬트, 아나사지, 그리고 우트(1500~1870 CE) 단계의 다양한 동물상, 의인화된 삼각형의 인물상, 그리고 발자국 문양 등이 표현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 출산 장면에서 아기는 발부터 먼저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30] 이러한 도산(倒産)은 아주 위험한

27) K. Schmidt (2010), "Göbekli Tepe - the Stone Age Sanctuaries: New results of ongoing excavations with a special focus on sculptures and high reliefs", *Documenta Praehistorica* XXXVII, Ljubljana University Press.

28) I. Hodder and L. Meskell (2011), "A curious and sometimes a trifle macabre artistry: some aspects of symbolism in Neolithic Turkey", *Current Anthropology* 52(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 P. Perkins (2012), "The Bucchero Childbirth Stamp on a Late Orientalizing Period Shard from Poggio Colla", *Etruscan Studies* 15(2), Etruscan Foundation, p. 182.

30) 암각화로 표현된 확실한 출산 장면은 이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면

것으로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많은 경우에 산모나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31]

괴베클리 테페 성소[32]

모압 암각화[33]

〈그림 1〉 고정된 벽면에 표현된 출산 장면

3.1.2. 토기를 장식하는 출산 장면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 있는 에트루리아 문화의 포기오 콜라(Poggio Colla) 취락 유적에서는 기원전 6~7세기의 부체로(bucchero) 토기에 장식된 출산 장면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무릎을 세워 분만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는 머리와 어깨까지 나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장면은

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암각화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K. Hays-Gilpin (2004), *Ambiguous Images: Gender and Rock Art*,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를 참고할 것.

31) K. Hays-Gilpin (2004); K. B. Castleton and D. B. Madsen (1981), "The Distribution of rock art elements and styles in Utah", *Journal of California and Great Basin Anthropology* 3(2), Malki Museum Press; Moab Area Travel Council (2013), "Rock sites in the Moab Area". Discover Moab webpage, Utah Office of Tourism, 2013.10.01. http://www.discovermoab.com/rockart.htm.

32) 출전: K. Schmidt (2010), p. 246, Fig. 13.

33) 출전: 인터넷 이미지 저자 편집.

포기오 콜라 토기[36]

밈브리스 문화 토기[37]

모체 문화 토기[38]

경주 쪽샘 지구 신라 토우[39]

〈그림 2〉 토기를 장식하는 출산 장면

아주 작은(11.3×6.1mm) 압인 문양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양은 의례적 성격이 강한 부체로 완의 저부편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토기편이 출토된 문화층은 화재로 폐기된 취락의 재퇴적층으로 그 안에서는 다량의 수입 부체로 토기와 상위 등급 부위의 고기 뼈들이 나왔다. 따라서 출산 장면으로 장식된 이 토기는 원래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4]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밈브리스(Mimbres) 문화권에서는 기원후 1000년~1500년에 해당되는 고전기 단계의 토기에 장식된 출산 장면이 두 개나 확인되었다. 두 장면 모두에서 흥미롭게도 아기는 앞을 바라보

34) P. Perkins (2012), pp. 148-56.

며 이른바 만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자세로 아기가 순조롭게 분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출산 장면들은 밈브리스 문화의 특징적인 채도 완의 내부에 그려졌는데, 이와 같은 장식 채도는 주로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35]

페루 북부 모체 문화권에서는 기원후 500년경에 해당되는 출산 장면이 이 문화의 특징적인 등자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용기(stirrup handle vessel)에서 확인되었다. 토기의 상부와 손잡이가 만나는 지점에 부착된 이 토제 상은 뒤에서 언급할 키프로스의 석제 소상과 마찬가지로 출산하는 산모와, 산모를 뒤에서 받쳐주는 도우미, 그리고 산모 앞에 쭈그리고 있는 산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도 표현되어 있다. 주로 성적인 장면들로 장식되었던 이러한 등자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용기는 의례적 성격이 강하며, 무덤 내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40]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토우에서 출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 황남대총 주변에서는 출산 중인 여성의 토우 두 점이,[41] 그리고 최근에서는 경주 황오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 쪽샘 지구의 5~6세기 대에 해당되는 적석목곽분에서 한 점이[42]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신라 토우의 경우에

35) M. Hegmon and W. R. Trevathan (1996), "Gender Anatomical Knowledge and Pottery Production: Implications of an Anatomically Unusual Birth Depicted on Mimbres Pottery from Southwestern New Mexico", *American Antiquity* 61,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36) 출전: 인터넷 이미지 저자 편집.

37) 출전: M. Hegmon and W. R. Trevathan (1996), p. 748, Fig. 1.

38) 출전: 인터넷 이미지 저자 편집.

39) 출전: 문화재청 (2010).

40) M. Lazzari and D. Schlesier (2011), *Exploring Art: A Global Thematic Approach (4th ed.)*, Stamford: Cengage Learning.

41)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42) 문화재청 (2010), 「1,500여 년 전 고분에서 깨어난 신라 토우(土偶)」, 2010.4.8. 보도자료.

는 아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만삭인 산모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음부는 과장되게 벌어져 있어 실제 출산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흥미롭게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는 달리 신라 토우에서는 산모가 몸을 뒤로 구부린 자세로 출산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3.1.3. 소상으로 표현된 출산 장면

키프로스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키소네르가-모스필리아(Kissonerga-Mosphilia) 취락 유적에서는 출산 장면을 표현한 기원전 3000년경의 소상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금석병용기 단계의 문화층 내에 위치한 의례적 구덩이 한곳에서는 50여 점의 매납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무릎을 벌린 채 앉아 있는 이 토제 소상(KM 1451)이 그 중 하나이다. 특이하게도 이 소상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여성의 음부 아래쪽에 붉은색 물감으로 그려졌다.[43]

키프로스에서는 출산 장면을 표현한 철기시대, 즉 기원전 6~8세기경의 석제 소상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분만하는 산모, 산모를 뒤에서 받쳐주는 도우미, 그리고 산모 앞에 쭈그리고 있는 산파, 이 세 명의 여성을 함께 표현한 석제 소상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그중 한 점(Louve AM 3368)에서는 산도를 따라 나오는 아기의 모습까지 표현되었다. 이 조각상들은 '신전' 건축물의 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거나 그에 감사하기 위해 바

43) D. L. Bolger (1992); S. L. Budin (2011), *Images of Woman and Child from the Bronze Age: Reconsidering Fertility, Maternity, and Gender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2-3.

44) 출전: D. L. Bolger (1992), p. 150, Fig. 5.

45) 출전: M. Vandervondelen (2002), p. 151, Fig. 6.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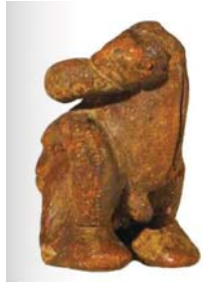
46) 출전: A. Proulx (2006), Plate 5.

47) 출전: S. Kaner (2009), p. 35, Fig. 18.

키소네르가–모스필리아 유적 토제 소상[44]

키프로스 출토 철기시대 석회암제 소상 – 본문에 언급된 세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조각상(Louvre AM 3368)은 2차 문헌만을 통해 그 존재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 조각상은 모습을 확인 못함. 여기에 제시된 조각상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조각상으로 잔존하는 부분에는 두 명의 여성이 표현되어 있다.[45]

나스카 문화 토제 소상[46]



샤카도 유적 토제 소상[47]

〈그림 3〉 소상으로 표현된 출산 장면

친 봉헌물로 해석되고 있다.[48]

페루 남부 나스카 문화권에서는 전기 중간기 단계(100~650 CE)에 제작된 토제 소상들에서도 출산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 이 여성들은 쭈그리거나 누워있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산도를 따라 나오는 아기의 머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49] 이러한 모형들 중에는 전세품이 많아 그 정확한 출

48) M. Vandervondelen (2002), "Childbirth in Iron Age Cyprus: A Case Study", *Engendering Aphrodite: Women and Society in Ancient Cyprus* (eds. D. Bolger and N. Serwint), Boston: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토 맥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토제소상들은 나스카 문화의 의례적 중심지인 카후아치(Cahuachi) 유적과 무덤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50]

일본에는 죠몽시대 동안 많은 소상들이 제작되었으며, 그중에는 출산 장면을 표현한 소상도 포함되어 있다.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샤카도(釈迦堂) 유적에서는 1,000점이 넘는 토제 소상들이 파손된 상태로 이 마을 전역 걸쳐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쭈그린 자세로 아이를 분만하는 모습으로 제작된 히로하타(広畑) 형식의 여성 소상이다.[51] 이 소상 역시 파손되어 머리 부분은 없으나 다리 사이에서 분만 중인 아기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52]

3.1.4. 출산 장면의 제작과 활용 — 그 사회적 의의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출산 장면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다양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맥락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과거 사회들의 인식은 물론, 그 사회들의 모습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

49) A. Proulx (2006), *A sourcebook of Nasca ceramic iconography: reading a culture through its art*,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p. 129.

50) 남미 문화권의 가장 유명한 출산 이미지는 아마도 덤바톤 오크스(Dumbarton Oaks) 연구소에 소장된 틀라졸테오틀(Tlazolteotl) 아즈텍 조각상일 것이다. 전세품인 이 조각상은 기원후 1300~1521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것을 조각하는데 사용된 도구들은 19세기의 것들이다. 즉, 이 조각상은 아즈텍의 코덱스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모방한 근대 이후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J. MacLaren Walsh (2008), "The Dumbarton Oaks Tlazolteotl: looking beneath the surface", *Journal de la Société des Américanistes* 94(1), Société des Américanistes.

51) M. Yamagata (1992), "The Shakado Figurines and Middle Jomon Ritual in the Kofu Basi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9(2-3),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52) S. Kaner (2009), "Encountering Dogu", *The Power of Dogu: Ceramic Figures from Ancient Japan*, (ed. S. Kaner), London: British Museum Press.

것이다. 우선, 고정된 벽면에 표현된 출산 장면들을 보면 그것들이 제의적 행위가 진행된 중요한 공간 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압의 출산 암각화가 그려진 거대한 바위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암각화를 남겼던 장소였고, 괴베클리 테페의 출산 장면이 발견된 성소는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의적 공간이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이 지역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정신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모티프들과 함께 발견된다.[53] 따라서 각각의 출산 장면은 그것이 발견된 제의적 공간 내에서 의례적 담론의 기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렇듯 공적인 맥락에서 출산의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내에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출산 장면으로 장식된 토기와 관련해서는 그것의 사용 목적은 물론, 그 제작 집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포기오 콜라의 토기에 찍힌 출산 장면은 그 크기나 위치로 인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토기를 직접 사용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당시의 에트루리아 토기를 장식하는 데는 인물 모티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포기오 콜라의 출산 장면은 아주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용도나 의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다.[54] 모체와 신라의 토기에서 확인된 출산 장면은 토기를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던 다른 모티프들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체와 신라의 토기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토우들로 장식되었으며, 그중에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교하는 모습의 토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신라 토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적인 장면들이 일반적으로 '풍요'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모체 토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엘리트 권력의 '재생산'

53) K. Schmidt (2010).

54) 예를 들어, P. Perkins (2012), pp. 190-3.

을 — 그 토기들이 엘리트의 무덤에 부장된 만큼 —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55]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모체와 신라의 토기에서 확인되는 출산 장면은 성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재생산의 기능을 나타낸 일련의 표현들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밈브리스 토기에 표현된 출산 장면의 경우에는 그 토기가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이러한 출산 장면은 피장자의 생전 경험이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은 밈브리스 토기의 제작 시스템과 제작 집단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되는데,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헤그몬과 트레바탄이[56]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은 밈브리스 토기의 출산 장면에서 아기 앞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 아기가 실제로 이러한 자세로 태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늘날에는 그럴 경우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된다 — 출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남성이 토기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로써 그들은 여성을 밈브리스 토기 생산의 주체로 보았던 기존의 입장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물론 아기가 앞을 바라보는 자세는 밈브리스 문화의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남성을 토기의 생산 주체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 바 있다.[57] 어찌되었든 이 사례는 지극히 여성적인 경험인 출산의 장면이 그것을 제작한 주체의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사회적 이슈들(예를 들어, 토기 생산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들의 경우, 각각이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그것

55) M. Weismantel (2004), "Moche Sex Pots: Sexuality and Reproduction in Ancient South America", *American Anthropologist* 106(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56) M. Hegmon and W. R. Trevathan (1996).

57) C. T. Espenshade (1997), "Mimbres Pottery, Births, and Gender: A Reconsideration", *American Antiquity* 62(4),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들이 단순히 풍요를 상징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58] 우선 키소네르가-모스필리아에서 발견된 토제 소상을 살펴보면 그것이 임신의 여러 단계를 표현한 다른 소상들과 함께 출토되었고, 또한 오랫동안 손에 쥐어져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모든 소상들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교육적 도구로 해석된 바 있다.[59] 또한 키프로스의 철기시대 석제 소상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출산의 여신을 모신 신전에서 발견된 만큼,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는 구체적 목적을 가졌던 봉헌물으로 해석할 수 있다.[60] 마지막으로 죠몽시대의 토제 소상들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의도적으로 파손되었고 또한 붉은 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사람 몸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주술 행위에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61] 샤카도 소상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현대 여성들이 미지의 경험에 대비하여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안정 장치를 모색하듯이, 먼 옛날의 여성들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출산에 대해 능동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안전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산 관련 물질문화

앞서 언급했듯이 보상은[62] 고고학 연구를 통한 고대 여성의 출산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출산의 전 과정이 어떠한 물질문화의 활용을

58) 이 부분의 논의에서 정확한 출토 맥락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행 연구가 부족한 나스카의 소상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59) E. Goring (1991), "The development of a coroplastic art in Chalcolithic Cyprus", *Chalcolithic Cypru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282-283,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60) M. Vandervondelen (2002).

61) M. Yamagata (1992).

62) E. Beausang (2000).

동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녀는 해당 물질문화를 총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본 절에서는 이 틀에 따라 보상이 검토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2000년대 이후에 발견된 자료들이나 보상이 간과한 사항들에 대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고학 자료에서 출산의 흔적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1. 고고학 자료 속 출산의 흔적

보상이 제시한 출산과 관련 있는 물질문화의 첫 번째 범주는 '출산 장소'이다.[63] 이는 출산을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안전한 공간이 특별히 마련되고, 이러한 행위가 물질문화의 활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드의[64]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산은 가장 흔하게는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공간 내에서 출산을 위한 일시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물질문화의 변화들(예를 들어, 칸막이의 설치)은 영구적이지 않아 고고학 자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민족지 자료를 보면 별도로 마련된 한시적 혹은 영구적 공간에서 — 영어권에서는 이를 흔히 '출산용 움막'(birthing hut)이라고 부른다 — 출산이 진행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65] 한국에서는,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출산이 여성의 생활공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웃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산실' 혹은 '산옥'이 사용되었음을 민속학적 기록이나 문학작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66] 참고로 보상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출산용 움막의 사례로 덴마크의 베드베크(Vedbeak) 근처에서 발굴된 움막 한 곳을 소개하는데, 이 움막의 중앙 노지 주변에는 플린트

63) E. Beausang (2000), p. 75.

64) C. S. Ford (1964), p. 55.

65) E. Beausang (2000), p. 75.

66) 이미숙 pers. comm.

제 칼들이 출토되었고, 움막 근처에는 네 개의 신생아 무덤과 한 살 이하의 유아 무덤이 발견되었다. 발굴자는 이곳을 기원전 5000년 무렵에 사용된 어로용 한정행위 장소로 보았으나, 또 다른 연구자는 이곳을 출산용 움막으로 해석했다. 후자의 경우, 움막에서 발견된 플린트제 칼들은 탯줄을 자르기 위한 도구로, 신생아 무덤들은 사산되거나 출산 직후에 의도적으로 살해된 아기들인 것으로 보았다.[67]

출산과 관련 있는 두 번째 물질문화의 범주는 '분만을 도와주는 보조기구'이다.[68]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출산 장면들에서 산모는 쭈그리거나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도 가장 좋은 분만의 자세라고 한다.[69] 고대 여성들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stool)나 특별히 제작된 출산용 의자(앉는 자리의 앞부분이 초승달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서, 혹은 출산용 벽돌 위에 쭈그려서 출산을 했다는 것을 히타이트, 이집트, 그리스 및 로마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다.[70] 또한 위에서 살펴본 출산 장면들뿐만 아니라, 산도를 따라 나오는 아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보조기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헌 자료나 시각적 표현물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이러한 출산 보조기구를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2001년에 이집트의 아비도스 유적에서 나온 출산용 벽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벽돌은 중왕국 시기(1800-1650 BCE)에 해당되는 아비도스 시장의 집에서, 그것도 여성의 거주 공간으로 이미 확인했던 곳에서 출토되었다. 이 벽돌은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신들의 이미지 등으로 다채롭게 장식되었는데, 벽돌의 상면이 심하게 부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

67) E. Beausang (2000), pp. 75-6.

68) E. Beausang (2000), p. 76.

69) S. Kitzinger (1980), *Pregnancy and Childbirth*, London: Michael Joseph, p. 204.

70) E. Beausang (2000), pp. 76-7.

었던 것으로 보인다.[71]

출산과 관련 있는 세 번째 물질문화의 범주는 '출산 관련 도구'이다.[72]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탯줄을 집고 자르는데 사용되었던 도구인데, 민족지 조사 자료를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73] 탯줄을 자르는데 사용된 도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례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기원전 4000년경의 페세쉬-케프(Pesesh-Kef) 칼을 들 수 있다. 이 석제 칼은 특이하게도 미이라 옆에 부장되었다(사자를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부장된다). 따라서 그것은 무덤 주인의 탯줄을 실제로 잘랐던 칼을 그 주인이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 또 다시 탯줄을 자르도록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74] 한편, 민족지 조사 자료를 보면 탯줄과 태반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따라서 그것은 사회의 규범에 따라 아주 의도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태반을 태운 다음에 그것을 접시에 담아 마을 외곽에 버리기도 했다.[75] 한국에서 조선시대 왕가와 일부 부유한 양반가를 중심으로 태항아리가 사용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기질의 용기에 태반이나 탯줄을 담아 처리하는 것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상에 의하면 이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출산 관련 도구로는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

71) J. Wenger (2009), "A Decorated Birth-Brick from South Abydos: New evidence on childbirth and birth magic in the Middle Kingdom", *Archaism and Innovation: Studies in the Culture of Middle Kingdom Egypt* (eds. D. P. Silverman, W. K. Simpson, and J. Wagner), New Haven: Yale Egyptological Seminar.

72) E. Beausang (2000), p. 77.

73) C. S. Ford (1964), pp. 64-65.

74) W. B. Harer Jr (1994), "Peseshkef: the first special-purpose surgical instru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83(6),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75) E. Beausang (2000), p. 77.

용된 약재 등을 담은 용기와 산모의 배를 따뜻하게 할 용도로 데워서 사용한 돌이 있다.

출산과 관련 있는 네 번째 물질문화의 범주는 '초자연적 힘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다.[76] 이것의 가장 친숙한 예는 금줄이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되어 고고학 자료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보상도 제대로 된 고고학적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아비도스 시장의 집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산용 벽돌과 함께 마법 지팡이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집트의 주술 전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방망이가 출생 당시에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교감 주술'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77]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 있는 다섯 번째 물질문화의 범주는 '출산 관련 세정 도구'이다.[78] 출산 후에 산모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청결을 위해서는 물론, 산후 조리의 일환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물, 그리고 그러한 물을 끓이기 위한 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출산 장소 근처에는 불을 맞은 작은 구덩이나 돌들이 산재해 있음을 인류학자들은 전하고 있다.[79] 한편 보상은 불을 맞은 돌무지들 중에는 사우나로써 기능했던 것들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80] 뜨겁게 달구어진 돌에 물을 뿌려서 낸 수증기는 산후 조리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렇듯 불과 물을 번갈아 맞아 금이 간 돌들은 고고학 자료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81]

---

76) E. Beausang (2000), p. 78.

77) J. Wenger (2009).

78) E. Beausang (2000), p. 78.

79) E. Beausang (2000), p. 78.

80) E. Beausang (2000), p. 78.

3.2.2. 출산의 세인 오페르트와(Chaîne opératoire)

고고학 자료에서 출산의 흔적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의 체크리스트는 역으로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출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보상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물질문화의 범주들은 결국 출산이라는 과정을 이루는 각각의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행위를 그 구성 단계별로 해체한 다음, 각각의 단계와 관련이 있는 고고학적 흔적들을 분석하는 것이 곧 세인 오페르트와(chaîne opératoire)의 접근 방법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 방법에 의해 고고학 자료에서 존재하는 흔적들을 찾아내설 경우, 과거의 출산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가능한 작업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3.3. 출산 중 사망한 산모와 태아의 인골

예나 지금이나 출산은 죽음의 위협을 동반한다.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출산하는 여성 1만 명 당 24명이 사망하고, 특히 15살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할 확률은 1/150이다.[82] 출산 중에 산모가 사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태아가 골반 혹은 산도에 걸려 성공적으로 분만되지 못하는 경우와 과다 출혈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과거에도 꽤 많은 여성이 출산 중에 태아를 분만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고고학 자료

81) 참고로 바필드와 호더는 이러한 사우나 시설을 취사용 노지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제시하고 있다: 1) 유구 내 유물의 부재, 2) 물과의 관련성, 3) 유구 퇴적층 내 생활 관련 폐기물의 부재. L. Barfield and M. Hodder (1987), "Burnt mounds as saunas", *Antiquity* 61, Antiquity Publications, pp. 376-8.

82) WHO Fact Sheet (2013), "Maternal Mortal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p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10.01.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48/en/index.html

에 그들의 흔적이 남겨졌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인골 자료를 보면 태아와 함께 사망한 여성의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83] 출판 및 미출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확인한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의 인골(즉, 산모의 배 속에서 막달의 태아 인골이 발견된 사례)은 30여 개체에 불과하다.[84] 이 사례들이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출산 중에 태아를 분만하지 못한 채 산모가 사망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고학 자료에서 출산 중 태아와 함께 사망한 여성의 인골 자료가 이렇게 빈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3.3.1. 산모–태아 인골 자료의 부재에 대한 탐색

고고학자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태아 인골의 보존 및 수습의 문제일 것이다. 즉, 태아의 골격은 성인의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산모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인골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그것이 운 좋게 보존된다 하

---

83) C. Cruz and S. Codinha (2010), "Death of mother and child due to dystocia in 19th century Portugal",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20, John Wiley & Sons, Ltd.; K. Killgrove (2012), "Childbirth and C-Sections in Bioarchaeology", Powered by Osteons webpage, K. Killgrove, 2013.10.01. http://www.poweredbyosteons.org/2012/03/childbirth-and-c-sections-in.html; A. Willis and M. F. Oxenham (In Press), "A Case of Maternal and Perinatal Death in Neolithic Southern Vietnam, c. 2100-1050 BCE",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John Wiley & Sons, Ltd.

84) 킬그로브는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의 인골이 고고학적으로 총 22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K. Killgrove (2012), 여기에 윌리스와 옥센햄이 언급한 추가적인 사례들과 Willis & Oxenham (In Press), 2002년에 파주의 파평윤씨 선산에서 발견된 16세기의 미이라화된 산모의 사례를 합치면 B. S. Chang *et al.* (2008), "Ultra-microscopic Investigation of the Preservation Status of Hair Collected from a Full-Term,Intrauterine Baby Mummy of the Joseon Dynasty,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18, John Wiley & Sons, Ltd., 30여 개체가 된다.

더라도 출산이 유의미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인골 자료가 발굴 현장에서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산모-태아의 인골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오늘날의 고고학적 연구 패턴 때문만인가? 혹시 과거의 사람들의 행위 패턴도 그러한 인골 자료의 부재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후자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킬그로브는[85] 출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개입'의 측면에서 산모-태아 인골 자료의 부재를 다루었는데, 그녀가 특히 주목한 것은 로마시대의 제왕절개이다. 오늘날에는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기 위해 제왕절개가 이루어지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그것의 목적과 의미가 사뭇 달랐다고 한다. 즉, 로마시대에는 의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켜 세수를 늘려야 하는 로마 국가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산모로부터 혹시 살아 있을 수 있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제왕절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왕절개는 국법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황제의 법전(Justinian's Digest)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죽은 산모의 배에서 태아를 꺼내는 시도를 하지 않고 묻는 것을 제국의 법으로 금한다. 이렇게 할 경우 산모와 함께 태아의 가능성까지 말살시킨 것으로 간주하겠다(11.8.2)".[86]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적출하는 행위는 아즈텍 사회에서도 일어났는데, 출산 중에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즈텍 사람들은 산모를 살리기 위해 흑요석 칼로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잘라냈다고 한다.[87] 이렇듯 아스텍 사회에서는 산모의 위상이 매우 높았고, 초산 중에 사망한 여성은 심지어 전투 중에 전사한 남성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사후에 남성 전사들과 함께 아스텍의 내세관에서 최고의 천당에 해당되

85) K. Killgrove (2012).

86) "Negat lex regia mulierem, quae praegnas mortua sit, humari, antequam partus ei excidatur: qui contra fecerit, spem animantis cum gravida peremisse videtur."

87) I. Clendinnen (1991), *Aztecs: An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는 '태양의 집'(House of the Sun)으로 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중세 시대 영국에서는 죽은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적출하는 기독교적 전통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태아를 산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88]

결국 위의 사례들에서 확인된 태아 적출 행위가 일어날 경우, 태아와 함께 사망한 여성의 인골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문화적 개입은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모-태아 인골 자료의 상대적 부재를 설명해 줄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앵글로-색슨시대 매장지에서 나온 인골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여성의 출산 문제를 다룬 세이어와 디킨손의[89]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앵글로-색슨시대 매장지는 그 조사 및 연구의 역사가 유구할 뿐만 아니라, 특히 크로포드나 길크리스트와 같은 젠더 고고학자들이 그 자료를 대상을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90] 그곳에 매장된 여성 인골 자료는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만약 산모-태아 인골이 존재한다면 영국의 앵글로-색슨시대 매장지에서 만큼은 그것이 연구자의 무관심 등으로 간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앵글로-색슨시대 매장지들에서도 분만 중 태아와 함께 사망한 여성의 인골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이어와 디킨손은[91]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앵글로-색슨 사회에서는

88) D. Sayer and S. D. Dickinson (2013), "Reconsidering Obstetric Death and Female Fertility in Anglo-Saxon England", *World Archaeology* 45(2), Routledge & Kegan Paul.

89) D. Sayer and S. D. Dickinson (2013).

90) S. Crawford (2007), "Companions, Co-Incidences or Chattels? Children and their Role in Early Anglo-Saxon Multiple Burials", *Children, Childhood and Society* (eds. by S. Crawford and G. Shepard), Oxford: BAR International Series 1696; R. Gilchrist (2012), *Medieval Life: Archaeology and the Life Course*, Woodbridge: Boydell.

91) D. Sayer and S. D. Dickinson (2013).

여성의 출산을 늦추거나 그 횟수를 제한하는 다양한 기제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켄트 지역을 통치했던 에셀베르트(Ethelbert) 왕의 법령을 보면 여성과의 성교를 규제하는 항목들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곡식을 빻는 노예, 귀족 여성의 시녀, 그리고 자유민의 시녀나 노예와 성교를 할 경우 벌금을 물렸다. 이렇듯 앵글로-색슨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은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자주 임신을 했는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3.3.2. 출산의 보편성과 빈도에 대한 재고

세이어와 디킨손의 앵글로-색슨 사례는 산모-태아 인골 자료가 고고학적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는 임신을 경험했던 과거 여성들의 수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과거의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이 얼마나 보편적인 경험이었는지, 또한 얼마나 빈번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맺음말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고고학에서도 과거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2009년도에 개최된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학술대회는[92] 한국의 주류 고고학자들이 '젠더'라는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한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93]과 같은 제목의 논

92) 백제연구소(2009),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93) 김종일(2011),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한국고고학회.

문도 한국고고학계의 대표 학회지에 실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고고학계 내에서도 과거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관련 주제인 '출산'의 연구 필요성과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발굴 현장에서 그러한 출산의 흔적을 가장 먼저 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필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출산에 대한 연구가 과거의 여성을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매력 중 하나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와중에서 사회의 통념과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되곤 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밝혀진 과거 출산의 실체 역시 그러한데,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 내에 진행되고 있는 여성과 출산에 관한 담론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논 저】

국립중앙박물관(2009),『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김종일(2011),「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한국고고학보』78, 한국고고학회.

문화재청(2010),「1,500여 년 전 고분에서 깨어난 신라 토우(土偶)」, 2010.4.8. 보도자료.

백제연구소(2009),『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Barfield, L. and M. Hodder (1987), "Burnt mounds as saunas", *Antiquity* 61, Antiquity Publications.

Beausang, E. (2000), "Childbirth in Prehistory: An Introduction",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3(1), SAGE Publications.

Bolen, K. M. (1992), "Prehistoric Construction of Mothering", *Exploring Gender Through Archaeology* (ed. by C. Claassen), Madison, Wisconsin: Prehistory Press.

Bolger, D. L. (1992), "The Archaeology of Fertility and Birth: A Ritual Deposit from Chalcolithic Cypru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48(2),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Budin, S. L. (2011), *Images of Woman and Child from the Bronze Age: Reconsidering Fertility, Maternity, and Gender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tleton, K. B. and D. B. Madsen (1981), "The Distribution of rock art elements and styles in Utah", *Journal of California and Great Basin Anthropology* 3(2), Malki Museum Press.

Chang, B. S. *et al.* (2008), "Ultramicroscopic Investigation of the Preservation Status of Hair Collected from a Full-Term,Intrauterine Baby Mummy of the Joseon Dynasty,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18, John Wiley & Sons, Ltd.

Clendinnen, I. (1991), *Aztecs: An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key, M. W. and J. Spector (1984), "Archaeology and the Study of Gender",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7, Academic Press.

Crawford, S. (2007), "Companions, Co-Incidences or Chattels? Children and their Role in Early Anglo-Saxon Multiple Burials", *Children, Childhood and Society* (eds. by S. Crawford and G. Shepard), Oxford: BAR International Series 1696.

Cruz, C. and S. Codinha (2010), "Death of mother and child due to dystocia in 19th century Portugal",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20, John Wiley & Sons, Ltd.

Davis-Floyd, R. and C. Sargent (1997), *Childbirth and authoritative knowledge: Cross-cultural perspec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spenshade, C. T. (1997), "Mimbres Pottery, Births, and Gender: A Reconsideration", *American Antiquity* 62(4),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Ford, C. S. (1964),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eproduction* (Yale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32), New Haven: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Press.

Gilchrist, R. (2012), *Medieval Life: Archaeology and the Life Course*, Woodbridge: Boydell.

_____ (1999), *Gender and archaeology: contesting the past*, London: Routledge.

Goring, E. (1991), "The development of a coroplastic art in Chalcolithic Cyprus", *Chalcolithic Cypru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282-283,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Hamilton, S., R. Whiteshouse and K. I. Wright (2007), "Introduction", *Archaeology and Women: Ancient and Modern Issues* (eds. S. Hamilton, R. D. Whitehouse and K. I. Wright),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Harer, W. B. Jr (1994), "Peseshkef: the first special-purpose surgical instru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83(6),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Hays-Gilpin, K. (2004), *Ambiguous Images: Gender and Rock Art*,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Hegmon, M. and W. R. Trevathan (1996), "Gender Anatomical Knowledge and

Pottery Production: Implications of an Anatomically Unusual Birth Depicted on Mimbres Pottery from Southwestern New Mexico", *American Antiquity* 61,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Hodder, I. and L. Meskell (2011), "A curious and sometimes a trifle macabre artistry: some aspects of symbolism in Neolithic Turkey", *Current Anthropology* 52(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www.discovermoab.com/rockart.htm

http://www.poweredbyosteons.org/2012/03/childbirth-and-c-sections-in.html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48/en/index.html

Kaner, S. (2009), "Encountering Dogu", *The Power of Dogu: Ceramic Figures from Ancient Japan*, (ed. S. Kaner), London: British Museum Press.

Killgrove, K. (2012), "Childbirth and C-Sections in Bioarchaeology", Powered by Osteons webpage, K. Killgrove, 2013.10.01.

Kitzinger, K. (1980), *Pregnancy and Childbirth*, London: Michael Joseph.

Lazzari, M. and D. Schlesier (2011), *Exploring Art: A Global Thematic Approach (4th ed.)*, Stamford: Cengage Learning.

MacLaren Walsh, J. (2008), "The Dumbarton Oaks Tlazolteotl: looking beneath the surface", *Journal de la Société des Américanistes* 94(1), Société des Amé ricanistes.

Malinowski, B. (1932), *The sexual life of savages in northwestern Melanesia*,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Moab Area Travel Council (2013), "Rock sites in the Moab Area". Discover Moab webpage, Utah Office of Tourism, 2013.10.01.

Nelson, S. M. (2009), "Studies of Ancient Women: Global Trends", *Women of Ancient East Asia* (ed. Baekje Research Institute),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Baekje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s.

_____ (1997), *Gender in Archaeology, Analyzing Power and Prestige*, Walnut Creek: Altamira Press.

O' Donnell, E. (2004), "Birthing in Prehistor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3, Elsevier.

Perkins, P. (2012), "The Bucchero Childbirth Stamp on a Late Orientalizing Period Shard from Poggio Colla", *Etruscan Studies* 15(2), Etruscan Foundation.

Proulx, A. (2006), *A sourcebook of Nasca ceramic iconography: reading a culture through its art*,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Sargent, C. (2004), "Birth", *Encyclopedia of Medical Anthropology: Health and Illness in the World's Cultures (Volume I)* (eds. C. R. Meber and M. Ember), New York: Springer.

Sayer, D. and S. D. Dickinson (2013), "Reconsidering Obstetric Death and Female Fertility in Anglo-Saxon England", *World Archaeology* 45(2), Routledge & Kegan Paul.

Schmidt, K. (2010), "Göbekli Tepe - the Stone Age Sanctuaries: New results of on-going excavations with a special focus on sculptures and high reliefs", *Documenta Praehistorica* XXXVII, Ljubljana University Press.

Sørensen, M. L. S.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Vandervondelen, M. (2002), "Childbirth in Iron Age Cyprus: A Case Study", *Engendering Aphrodite: Women and Society in Ancient Cyprus* (eds. D. Bolger and N. Serwint), Boston: American School of Oriental Research.

Weismantel, M. (2004), "Moche Sex Pots: Sexuality and Reproduction in Ancient South America", *American Anthropologist* 106(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Wenger, J. (2009), "A Decorated Birth-Brick from South Abydos: New evidence on childbirth and birth magic in the Middle Kingdom", *Archaism and Innovation: Studies in the Culture of Middle Kingdom Egypt* (eds. D. P. Silverman, W. K. Simpson, and J. Wagner), New Haven: Yale Egyptological Seminar.

Whitehouse, R. D. (2007), "Gender Archaeology and Archaeology of Women: Do We Need Both?", *Archaeology and Women: Ancient and Modern Issues* (eds. S. Hamilton, R. D. Whitehouse and K. I. Wright),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WHO Fact Sheet (2013), "Maternal Mortal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p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10.01.

Willis, A. and M. F. Oxenham (In Press), "A Case of Maternal and Perinatal Death in Neolithic Southern Vietnam, c. 2100-1050 BCE",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John Wiley & Sons, Ltd.

Wylie, A. (1991), "Gender theory and the archaeological record: Why is there no

archaeology of gender?", *Engendering Archaeology: Women and Prehistory* (eds. J. M. Gero and M. W. Conkey), eds. Oxford: Blackwell.

Yamagata, M. (1992), "The Shakado Figurines and Middle Jomon Ritual in the Kofu Basi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9(2-3),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Childbirth in Archaeology

Ko, Ilhong*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issue of childbirth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Firstly, it places the archaeological study of childbirth within a wider intellectual context and examines how childbirth came to be established as a valid research topic in associ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gender archaeology. Secondly, anthropological studies of childbirth are reviewed in order to illustrate how a consideration of the topic can offer further insights on a given social system. Thirdly, in order to illustrate that the archaeological study of childbirth is indeed empirically possible, three categories of archaeological material relevant to childbirth in the past are examined. They are 1) childbirth images, 2) material culture associated with childbirth practices, and 3) mother and full-term fetus skeletons. An examination of childbirth images (in particular their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texts) was able to shed light on past social meanings associated with childbirth. An examination of the material remains of childbirth practices that can be identified in the archaeological record resulted in a check-list of sorts that the archaeologist could use to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dentify childbirth practices when excavating in the field. Finally, the surprising lack of mother and full-term fetus skeletons found in the archaeological record was used as evidence to suggest that, contrary to patriarchical ideas regarding the biological role of women, pregnancy and in particular childbirth in the past may not have necessarily have been a widely experienced phenomenon as previously presumed.